

제주도방언의 문학적 활용 방안*

김 동 윤**

〈차 례〉

1. 머리말
2. 제주도방언의 문학적 수용에 나타난 몇 문제
3. 제주도방언의 문학적 활용을 위한 과제
4. 맺음말

1. 머리 말

문학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 현실과 삶에 대한 재체험인 이상 특정 지역 사람들의 현실과 삶을 반영하고자 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1) 방언을 통해 지역 민중들의 생활 정취와 정감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기에, 방언을 적절히 활용하여 창작하는 것이야말로 민중적 생활 현실의 구체성을 드러내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 된다. 방언이 적절히 활용된 문학 작품은 그것으로 인해 독특한 색채를 독자에게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주제를 부각시키는 데도 기여하게 됨으로써 작품의 효과를 극대화하게 되는 것이다.

* 이 글은 필자가 『탐라문화』 제17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에 발표한 「현대 소설의 제주도방언 수용 양상과 그 과제」에서 논의한 내용의 일부를 추려서 집고 보탠 것이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탐라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1) 김병택,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제주문학』 제20집(제주문인협회, 1991), 160쪽.

다만 방언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여 창작했을 경우, 다른 방언권의 독자들에게 얼마나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냐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방언은 지리적·역사적·사회적으로 비교적 독특한 지역의 언어이므로 국내의 다른 방언에 비해 유별난 점이 많아 그 의미 전달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효과적으로 방언을 구사하느냐 하는 점이 제주도방언을 활용하여 창작하는 작가들에게 주어진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방언을 문학(특히 소설)에서 수용하는 데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피고, 그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과제를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제주도방언의 문학적 수용에 나타난 몇 문제²⁾

제주도방언이 소설에 수용된 것은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해방 직후까지 밖에 갈 수 없다. 한국 현대소설에서의 방언 수용이 김동인의 「감자」(1925)에서부터 본격화했다고 본다면,³⁾ 20년 이상 늦은 셈이다.

해방 직후 제주에서 발간된 잡지 『신생(新生)』(1946)에 실린 이영구(이영복)의 소설 「야로(夜路)」⁴⁾와, 전쟁기에 계몽목을 중심으로 제주에서 발간된

2) 이 부분에서는 몇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방언 수용에 나타난 문제점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는 이 작가들이 특별히 문제가 많아서라기보다는 방언을 적극 활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긍정적으로 방언을 수용한 부분은 드러내지 않고 문제점만을 부각시킨 면도 있으니(긍정적인 면은 필자의 「현대소설의 제주도방언 수용 양상과 그 과제」에서 어느 정도 논의했으므로 참조 바람), 이런 점들에 대해 오해 없기 바란다.

3) 김용직, 「방언과 한국문학」, 『새 국어 생활』 6권 1호(국립국어연구원, 1996), 181~182쪽.

4) 「야로」에 나오는 제주도방언은 다음과 같다.

• 그러나 이미 승차를 못한 손님들은 아우성치며 니껍에 달라붙는 코생이떼들과 같이 승강구에 매달라붙는 것이었다. / “이것 좀 심어줍서게.” / “아야야 허리가 묵국꾸다게.” / “하구게, 저-살게맹기게, 저거나 하나씩 대위주워 불주거나만.” / (……) 助手는 그렇게 유유히 맘 가질 수는 못되었으니 첫째 승강구에 매달리니까 추워 못견딜 탓이었고 그리고 눈앞에 알농알농 오락가락하는 반지기곤밥에다 듚상한

『신문화(新文化)』 제1호(1952)에 발표된 최병일의 단편 「오도롱 하라방」⁵⁾은 제주도방언을 창작에 활용한 선구적 작품들이다. 이후 황순원의 「비바리」(1956), 오영수의 「실걸이꽃」(1968) 등 한반도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다수의 제주도방언이 구사되었다. 하지만 이 작가들의 제주도방언을 활용한 창작은 모두 일회성으로 끝났다. 지속적으로 제주도방언을 작품창작에 활용해나간 작가는 최현식이 처음이고, 오성찬·현기영·현길언 등의 작가들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면 주요 작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제주도방언 수용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필자는 이를 ‘소극적 활용’, ‘현실음과의 거리’, ‘표기 기준의 흔들림’ 등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1) 소극적 활용

제주도방언을 활용한 문학작품들을 검토해 보면, 작가들이 작품 창작시 자신 있게 제주도방언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들이 제주도방언을 활용하여 작품을 쓰면서도 독자들이 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 안에 표준어를 넣어 방언을 풀이하고 시에서는 방언에 주석을 달아 놓는 경우가 많다. 우선 오성찬의 「비바리」(1973)를 예시해 본다.

① “나오기만 나와 봐라. 쑤(좋은) 코(수)가 있다.”

“무신 좋은 코?”

“계매(글썩) 와 보기만 해라.”

멜룩에 갈치 구운 놈 한토막이 벌여져 있을 오늘 저녁 밥상을 연상하니 벌써부터 춤이 들각들각 목구멍을 내리며 식욕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그래 골넨 소리로/ “헌저들 내립서보져, 무싱걸 꾸물꾸물 히염수가.”/ 하고 야단하였다.

- 5) 「오도롱 하라방」에는 “저눔우 하라방 두린생이로고(미쳤군)”, “술 취한 하라방이 흥청 흥청 걸어왕게(걸어와서) 두렁청이(갑작이) 아지망고라(보고) 필 먹으웁 허는 말이 무신 말이우까” 등의 제주도방언이 나온다. 여기서 ‘오도롱’은 지금의 제주시 이호동을 말하는데, 오창명의 『제주도 이름과 마을 이름』(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에서는 ‘오드롱’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녀는 운숙이 속에 끌려 문지방을 넘어섰다.

(……)

“어딜 감시냐(가는 거냐)?”

문 여닫는 소리가 나고 아이들이 지나는 소리가 나자 부등개방의 걸걸한 목청이 마당을 쩍 울렸다.

“어따 저 어멍은 단똥(獨女)이나 잃어볼까 봐 그자… 우리 집에 감시난 걱정 맘서…”

“이년덜 비바리테(처녀떼)가 끌어댕기멍…….”⁶⁾

‘코’, ‘게매’, ‘감시냐’, ‘비바리테’ 등의 방언이 () 속의 표준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제주도방언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고려한 것이었겠으나, 이런 점은 아무래도 작품의 자연스러운 전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단똥’의 ‘똥’은 ‘음 처리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쓴 것이겠지만 분명히 ‘똥’의 잘못된 표기다.

② “동네 사람들이 날 승보암서라. 새로 온 민기네 식모는 밥 하영(맑이) 먹는 제주도 활망(활미)이엔 소문나서라.”

나는 하도 말도 안되는 말이라 어이가 없었다.

“아니 누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릴 험디가?”

“허기사 고향서 굶은 일, 쌍일을 허멍(하면서) 보리밥 한 사발 고봉으로 먹던 버릇 때문에 아멍(아무리) 밥을 적게 먹쟁 해도 공기밥 먹는 조캐네들보다사 하영(맑이) 먹어지는 게 사실이쥬. 사실이 그렇던 해도 밥 하영 먹는 식모엔 사방팔방에 높(납)한티 소문내는 뱀이 어디 이시니?”⁷⁾

현기영의 「순이 삼촌」(1978)에서 ‘순이 삼촌’이 상경했을 때의 한 장면이다. 한평생 제주도에서 살다가 상경한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성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방언 사용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반도의 독자들에게 제주도방언이 낯선 시점인지라, 부분의 방언들 뒤에 ()를 넣어 표준어로 다시 쓰고 있다.

6) 오성찬, 「비바리」, 『별을 따려는 사람들』(성지문화사, 1988), 239쪽.

7) 현기영, 「순이 삼촌」, 『순이 삼촌』(창작과비평사, 1979), 41~42쪽.

이런 점들은 제주도방언을 활용한 문학 창작이 보편화되기 전이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의 작품에까지 계속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김창집의 「섬에서 태어난 죄-귀향(歸鄕)」(1999)은 현재로선 가장 '제주어 표기법'에 가깝게 방언을 활용하고 있는 소설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 이 작품에서는 “나 영 살암져. 송보지 말라(나 이렇게 산다. 흥보지 마라).”·“이쪽으로 질 뻔 거 처암 밤주이(이쪽으로 질 뻔 것 처음 보지)?”⁸⁾식으로 제주토박이인 ‘덕삼’이 하는 말마다 통째로 () 속에 표준어를 넣어 처리하였다. 자연스러운 독서를 차단되는 느낌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방언을 활용하면서도 그 한편에서는 소극성이 자리잡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작가들이 제주도방언을 창작에 활용하는 데에 주저하고 있는 양상은 작중 인물로 등장하는 제주도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방언을 쓰는 데서도 파악된다. 다른 지방의 방언을 구사하는 것은 표준어를 쓰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 현기영의 초기 작품인 「소드방놀이」(1976)에는 다른 지방의 방언으로 보이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③ “글씨, 저 가마솥에 집어넣어 찜찌 죽일람가?”

“저건 진홀솥이랑께. 솥 열 개가 모두 죽을 끓이던 말여. 자넨 죽사발 갖고 나오란 말도 못 들었당가?”

이 말에 윤관영은 귀가 번쩍 떠었다. 죄인을 튀겨 죽일 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진홀국을 쑤는 거 아니냐.

“혹시나 하고 사발은 갖고 왔지만 기민명부에 못 올랐음께 헛일이여. 니기미, 죽 한 사발 후루룩 마셔봤으면 참말로 원이 없겠는디……. 곡기를 입에 댄 지도 달포가 넘는구만.”

“되래 그편이 낫제. 대관절 요렇게 무도한 진홀이 어디 있당가? 손에 사발을 들고 나오라니, 우리가 걸뱅이여, 뭐여? 진홀그릇은 마땅히 저들이 마련해 놔야지.”

“둘림병이 돈다고 그런다지 않는가. 그릇 하날 여럿이서 쓰면 전염된대여. 엠병, 송년들어서 굶기를 밥먹듯 하는 것도 서러운디, 송년 때마다 엠병은 돌아쌓고…….”⁹⁾

8) 『제주작가』 제2호(실천문학사, 1999), 196쪽·197쪽.

9) 현기영, 「소드방놀이」, 『순이 삼촌』, 9쪽.

조선시대 제주도 정의고을의 민중들간에 나누는 대화다. ‘글씨’, ‘죽일랑가’, ‘-랑개’, ‘-당가’, ‘쌓고’ 등은 전라도방언에 상당히 가깝다. 이 작품을 발표한 19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제주도방언이 중앙의 독자들에게 매우 생소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주도방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제주민중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려다 보니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주도방언이 아니라면 차라리 표준어로 처리하는 게 낫다. 언어가 정신을 지배하는 것인데, 제주도 사람을 소설에 등장시키면서 그 인물들에게 전라도방언을 구사하도록 한다는 것은 결함으로 지적될 만하다. 이는 인물의 성격 창조에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소설의 리얼리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오성찬은 문학수업기 당시 제주어의 구사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문제였으며, 이 문제로 등단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음을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생소한 제주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당시로서는 무리였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소위 ‘중화시킨 제주어’였다”¹⁰⁾면서 자신의 작품 「돌하르방」(1974)의 다음 대목을 그 예로 들어 보였다.

④ —이건 뭐 할꺼여?

노인이 입을 다물어 버리자 이번엔 사내가 조각하는 돌을 짚신발로 툭 건드리며 바보스럽게 물었다.

—왜구 알아, 왜구?

—알어, 왜 몰러?

—성문에 세워서 왜굴 막을 거여.

—돌이 왜굴 막어?

—그려, 돌로 왜굴 막을 거여.

—히히. 그게 그렇게 되나?

사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¹¹⁾

그러나 위의 예에는 제주도방언으로 보이는 말이 없다. 작가 자신은 ‘중화시킨 제주어’(‘중화’시켰다는 말은 방언형 표현과 표준어형 표현을 기능적으로

10) 오성찬, 「한국 소설에 있어서 제주어의 위치」, 『제주문학』20집(제주문인협회, 1991), 148쪽.

11) 오성찬, 「돌하르방」, 『별을 따려는 사람들』, 260쪽.

수용하여 조화시켰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제주도방언으로서의 특성을 제거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만 보면, '중화시킨 제주어'는 이미 제주도방언이 아닌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들은 작가들의 초기 작품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요즘의 작품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작가들이 제주도방언 활용에 소극적이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로 볼 수 있다.

2) 현실음과의 거리

문학 작품에 활용되는 일부 제주도방언 어휘들이 현실음과 적잖이 거리가 있다. 말하자면 그 표기가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작가들은 현실음을 고려함과 동시에 독자들이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를 쓰고 있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ㄹ'음의 경우 'ㄱ'로 처리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예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최현식의 『협죽도』(1962)는 제주도방언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협죽도』의 '물숨이'는 제주도의 초원에서 말을 돌보고 있는 목동이다. 그는 같은 주인 '김 영감'을 섬기는 '춘심이'와 함께 사는 것이 꿈인데, 그녀와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주인 영감과 갈등 등이 작품에 그려지고 있다. 방언이 많이 구사되고 있는 것은 이 소설이 서민층의 이야기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⑤ “그 동안 고생이 많았지이! 헌져(어서) 들어오라.”

대견스레 뛰쳐나온 김 영감은 그 작달막한 체구를 내어흔들며 회색이 만면이다.

“고생이엔 할 거 있수과?”

물숨이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¹²⁾

⑤의 '어서'라는 뜻의 '헌져'는 '흔져'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것이고, '있수과'도 '있수과' 혹은 '있우과'·'이수과' 등이 현실음에 가깝다. '할 거'는 '헐 거'로 쓰는 게 자연스럽다. 이 소설에는 '고르쳐줍서'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12) 최현식, 『협죽도』, 『홍상(紅裳)』(현대문학사, 1973), 182~183쪽.

‘ㄱ르쳐줍서’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국어 표준어에서 소실된 ‘ㄴ’음 처리 문제로 그렇게 썼을 것인 바, 이는 ‘ㄴ’음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은 타지방 출신으로서 그것과 ‘ㄱ’음과 잘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음 작품들에서는 ‘ㄴ’을 모두 ‘ㄱ’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⑥ 이디덜 다 모였구나. 우리 독쌈이나 한판 붙여보게 마썸.

어느 누구도 대거리를 하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꺼내어 침을 발라 눈감작할 새에 걸린 한 개비를 만들어 입에 비뚜름하니 물고 불미대장 할오방 앞에 다가들었다.

“불 빌립서. 사타구니에 돌린 불 말앙 담배 붙일 불 말이우다.”¹³⁾

⑦ 노인 : 어시른 어신양 살아가압주게. 고만시라. 이거 맨밤만 먹으면 안 넘어 갈겨난. (관객들에게 가서) 어이, 정식이 아방! 아까 물 질래 나갔당 오는 거 닭안게 나 호끔만 꾸어줘.(……)

할망 : 아이고, 여기 들어오난 마음이 탁 놓영산디, 아이고 갑자기 오줌이 모릅다. (노인에게) 아이고, 태식이 아방! 어디강 일 보른 되느니? 굴 밖에 까지 나갔당 와야 되느냐? 아이고 춤지 못허키여.

노인 : 이 할망야. 어느 세월에 굴 밖에까지 나갔당 오쿠과게. 가명 반은 훌치젠 험이우파?(……)

할망 : 아이고, 급행 죽어지키여. 장난허지 말앙 혼저 골아줘.¹⁴⁾

한림화의 장편소설 『한라산의 노을』(⑥)에서 ‘독쌈’·‘돌린’은 ‘독쌈’·‘돌린’을 잘못 쓴 것이고, 김경훈의 마당극 대본 「헛묘」(⑦)에서 ‘호끔’·‘모릅다’·‘춤지’·‘혼저’·‘골아줘’는 ‘호끔’·‘모릅다’·‘춤지’·‘혼저’·‘골아줘’로 해야 더 정확한 표기다. 특히 김경훈은 그의 마당극 대본집 『살짜기 읍서예』에서 걸쭉한 제주도방언을 매우 풍부하게 구사하면서도 ‘ㄴ’을 모조리 ‘ㄱ’로 처리해 버림으로써 결함을 자초하고 있다. 설화를 작품화한 오성찬의 「잡초 이야기」(1981)에서도 ‘보딘디’라는 표기가 보이는데, ‘가까운 데’의 뜻인 ‘보딘 디’는 ‘브딘 디’의 잘못된 표기다. 물론 ‘ㄴ’음 사용의 어려움 때문인 듯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표기로 써서는 더욱 곤란한 일이 아닌가 한다. 이 단어를 굳이 ‘ㄴ’음을 쓰지 않고 방언으로 표기한다면 같은 의미를 갖는 ‘즈깃’의 이형태(異

13)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한길사, 1991), 상권 82쪽.

14) 김경훈, 「헛묘」, 『살짜기 읍서예』(각, 2000), 73쪽.

形態)인 ‘저곳’ 정도로 바꿔 썼어야 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작품에 수용된 제주도방언들에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현실음과 다르게 표기된 경우가 적지 않다. 소설도 하나의 언어자료가 된다는 점을 작가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표기 기준의 흔들림

작가 나름의 기준도 확실히 세워놓지 못하고 있으며,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들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 ‘-마썸’과 같은 형태만 하더라도 청자존대(聽者尊待)를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하는데도 띄어 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의문문 등에 문장부호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를 낳는 일도 있다.

현길언의 『여자의 강』(1992)은 제주 여인의 운명적 삶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방언이 비교적 풍부히 구사되고 있다. 그러나 방언 표기와 관련해서 보면, 재고해 봐야 할 부분들도 드러난다. 방언 표기의 기준이 일부 흔들리는 면 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⑧ “아니. 밤중에 일어나보니 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이애가 불켜고 자는가 문을 열어보니, 이건 원.”

오서기 부인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바깥창이 누비이불로 쳐 있길래, 무슨 일이나고 물었읍주. 그런데, 이건 원 세상에.”

밖으로 불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쳤다는 것이다.

“독한 아이주만. 공부허는 데 독한 거야 닷할 거 안넵쥬.”¹⁵⁾

‘공부허는’에서는 접미사 ‘-하다’를 ‘-허다’로 쓰기도 했지만, ‘독한’과 ‘닷할’의 경우 ‘독헌’과 ‘닷헐’로 고치지 않은 것은 어색하다. ‘-하다’가 ‘-허다’로 되는 것은 제주도방언만의 고유 특성이 아닌 다른 방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15) 현길언, 『여자의 강』(한길사, 1992), 상권 27쪽.

기 때문에 다른 지방 독자들도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물엿읍주’와 ‘아납쥬’에서 보듯이 같은 사람의 말에서도 ‘의도’를 나타내는 ‘-주’와 ‘-쥬’가 혼용되고 있다. 이는 다른 작가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게 낫다고 본다.

⑨ “느가 헛일 했져. 아기가 느 젓을 먹으카부덴 허연다.”

“난 이젠 무엇이우파? 아기도 날 어머니엔 아니햐썩다.”

명자는 모친을 외면하면서 내뱉었다.

“설운 아기야, 느 몇 살인디? 무사 이 에미 심정을 몰랍시니.”

안침심방은 혀를 짹짹 차면서 딸을 멍청하게 쳐다보았다.

“설운 내 손지, 느가 어른이여. 어른이라. 나이먹은 것이 갓 돌지난 아기만큼도 못허연. 쫓쫓…….” 16)

위에서는 ‘설운’으로 쓰고 있으나 이 소설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설룬 아기야, 느 어떻허젠 햐디”(하권 36쪽)에서 보듯이 ‘설룬’으로 된 곳도 있다. 현실음은 ‘설룬’이지만 ‘설운’이 표준어에 가깝기 때문에 혼동하여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듯하다. ‘설룬’으로 쓰는 게 좋다고 본다.

이 작품에서는 또한 대자존대 선어말어미 ‘수’와 ‘쑤’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는 ‘수’로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니햐썩다’의 경우는 ‘아니햐수다’로 고쳐야 한다. 물론 여기서 ‘-햐-’은 ‘-햐-’의 오자임이 분명해 보이지만, 청자존대 선어말어미 ‘쑤’의 경우는 다른 여러 곳에 그런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작가의 책임으로 판단된다. “저 명자를 어떻 해줄 수 없수과?”(상권 13쪽), “어떻 될 것 갈수과?”(상권 14쪽) 등에서 보면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인 ‘-과’와 ‘-파’가 똑같은 환경인데도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도 통일해 써야 하겠다.

그리고 ‘허연다’의 경우 의문부호가 명확히 사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 뜻 전달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표준어에서 ‘-다’는 어미로 쓰이므로, 그것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것들도 의문부호를 명확히 사용하지 않아 의미 전달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들이다.

16) 위의 책, 하권 48쪽.

제주도방언의 문학적 활용 방안

- “물려받을 팔자주. 안침심방인들 심방될 사름이라.”(상권 59쪽)
- “어머님 딸 명자. 얼굴 곱지예.”(하권 30쪽)
- “잡서. 나라.”(하권 34쪽)
- “주인 없는 방에 영 들어앉아도 되는 거우과.”/“문을 무사 단압신고. 동네 어른들 앞에서 따져야 할 건데.”(하권 50쪽)
- “나야 힘이 있어미썸. 요즘 세상에 사름 목숨이 목숨이우파.”(상권 84쪽)

제주도방언을 전국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한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다소 사소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문장부호까지도 명확히 쓰려는 작가들의 섬세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3. 제주도방언의 문학적 활용을 위한 과제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작품 창작에서 성공적으로 제주도방언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방언 활용을 통해 어떻게 제주민의 고유한 정서를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그리고 작중인물의 성격 창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런 면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단지 방언을 적극 활용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미학적 장치를 통한 방언 활용 차원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문학에서는 방언을 구사하는 일 자체보다는 방언을 작품 속에 녹아들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이런 사항을 전제로 해 두면서, 그밖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제주도방언의 문학적 활용을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표기 규정의 정립

제주도방언의 기본적인 표기 방법에 대한 표준 규정을 현대어 감각을 고려하여 작품 창작에 알맞도록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언도 어느 정도까지는 표기 방법 등이 약속되어 있어야 눈에 익히고 귀에 익힐 수가 있을 것”¹⁷⁾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작가들마다 나름대로의 표기 기준은 마련해 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혼란이 있다. 독자들의 혼란은 작품의 올바른 이해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동안 제주도방언 표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현평효의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태학사, 1985)나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등에서는 범례에 방언 표기 기준을 마련했으며, 김영돈·현용준·현길언 공저 『제주설화집성(1)』(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1985)에서는 '제주어 표기법 시안'을 마련해 게재한 바 있다. 특히 제주방언연구회에서는 모두 26항으로 구성된 '제주어 표기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제주어사전』(제주도, 1995)에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기준들은 학술적인 면에서는 적합할지 몰라도 문학 창작에 그대로 적용해 활용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제주어 표기법'이나 '제주어 표기법 시안'을 보면, 가령 단모음 'ㄱ'이 제주어에서 발음이 안 되어 이중모음 '게'로 표기함에 따라 '돼(升, 되), '쉐(牛, 소), 웨가(外家, 외가), 쉼소(最小, 최소), 뉘다(爲, 되다)' 식으로 쓴다거나, 'ㄷ, ㅋ, ㅌ' 등의 받침을 쓰지 아니하여 '꽃(花, 꽃), 동녘(東, 동녘), 끝(末, 끝), 밭(田, 밭) 등과 같이 쓰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이 쓰는 것은 현행 표준어와 거리가 있어서 문학 창작에 그 규정을 좇아 적용했을 경우 일반 독자들의 의미 파악에 문제가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점들이 현행 표준어와 가깝게 정리되지 않고서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읽는 소설에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다.

특히 제주도방언 표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래아('·')이다. '·'는 현대국어 표준어에서 사라져버린 음에 대한 표기이고 한반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음이기 때문에 활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하다'처럼 접미사나 '하다'(爲)와 같이 동사로 쓰일 때의 '·'는 현재로서는 제주도 사람들도 'ㄱ'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허라(하라)'는 '허라', '허연(하여서)'은 '허연' 등으로 쓰는 게 좋을 것이다. 한반도 방언에서도 '가실헨다'·'못헨다' 등으로 '-하다'가 많이 나온다.

이처럼 '·'가 '-하다', '하다' 등으로 쓰일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문

17) 송상일, 「제주문학의 향토성과 보편성—토론의 현장」, 『제주문학』20집(제주문인협회, 1991), 170쪽.

제는 그 이외의 경우다. ‘ㄱ랑비, ㄱ새, ㄱ올갱이, ㄱ올체, ㄱ독, ㄱ므르, ㄱ몰, ㄱ호루, ㄱ하나’ 같은 체언이나 ‘ㄱ다, ㄱ둔다, ㄱ뜨리다, ㄱ붉다, ㄱ습다’ 같은 용언, ‘ㄱ싸, ㄱ초근초근, ㄱ솔그랑, ㄱ죇죇이, ㄱ호쌌’ 같은 수식언 등 ‘ㄱ’가 들어가는 어휘는 수없이 많다.

현재 표준어에서 사라져버린 ‘ㄱ’을 그대로 작품에 쓸 경우 제주도 독자들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한반도의 독자들은 이것을 그 음대로 읽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반도 사람들은 대부분 ‘ㄱ’을 ‘ㄱ’로 읽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ㄱ’음을 잘 아는 작가들이 그것을 살려 쓴다 하더라도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학술용어도 아닌 다음에야 현재 사라져버린 음을 가지고 대중들이 읽는 소설에 쓰는 것은 아무래도 곤란하다.¹⁸⁾ 그렇다면 현실음에 가까운 것으로 바뀌서 표기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있다. 언중들은 ‘ㄱ’을 ‘ㄱ’에 가깝게 인지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ㄱ’, ‘몰’, ‘곧다’, ‘둔다’, ‘고싸’, ‘호쌌’과 같이 쓸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ㄱ’을 ‘ㄱ’로 바꿔 표기하는 것은 오히려 제주도방언을 살려 쓴다기보다는 왜곡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ㄱ’가 들어가는 낱말인 경우는 웬만하면 표준어화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도 해 보게 된다. 그 언어를 철저히 따져 읽는 시(詩)라면 ‘ㄱ’가 들어간 낱말을 써도 괜찮을 듯 싶지만, 언어를 하나하나 따져 읽기 곤란한 소설에서는 ‘ㄱ’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올다, 으든, 으라 가지’ 등에서 나타나는 이중모음 ‘으’도 문제다. 그런데 ‘으’는 현대에 와서 대부분 ‘ㄱ’로 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ㄱ’로 바뀌어서 ‘열다, 여든, 여라 가지’라고 쓰더라도 방언의 어감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태가 표준어와 비슷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ㄱ’나 ‘으’ 이외의 경우는 적어도 표기상의 문제는 없다.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 사용하느냐는 점만이 남는다. 독자들이 의미를 알아 볼 수 있느냐는 게 문제가 되나, 이는 ()에 표준어를 넣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게 아예 표준어를 쓰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를 너무 자주 쓰는 것은 독자를

18) 김창집은 소설에서도 ‘ㄱ’ 표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지수다. 「섬에 태어난 죄-귀향」의 한 부분만 예시해 본다: “잘 왔수다게. 오난 영혼 누이도 보곡 햄수게. 혼자 호르륵기 드르쌍 나도 혼잔 줍서. 홀어명 술장사 30년에 는 건 술뿐이우다(잘 왔습니다. 오니까 이런 누이도 보잖아요. 빨리 호르륵 들이키고 나도 한 잔 주세요. 술장사 30년에 는 건 술뿐입니다).”

피곤하게 함으로써 독서 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문맥상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할 것 같으면 과감히 방언만을 사용하는 게 낫다고 본다.

2) 방언 관련 사전의 편찬

대중성 있는 방언용례사전이나 방언관용어사전 등의 편찬이 절실하다. 방언 사전도 어휘를 좀더 보강하고 용례를 더욱 풍부하게 수록해야 한다.

지금까지 출간된 제주도방언을 수록한 사전류로는 현평효의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박용후의 『제주방언연구(자료편)』(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8), 석주명의 『제주도방언집』(서울신문사출판부, 1947)과 최근에 나온 『제주어사전』(제주도, 1995) 등이 있는데, 이 사전들은 작품을 창작할 때 참조하거나 일반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인들의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용례가 제대로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처 수록하지 못한 방언 어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학술 연구 자료를 위한 성격이 강해서 비전공자들의 활용에는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제주어사전』은 일부 어휘에 대해 용례를 들어 보이고 있지만,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인 선에 머무르고 있어 아쉽다.

이런 점에서 강영봉의 『제주의 언어(1·2)』(제주문화, 1994·1997)은 방언 용례 사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물로, 제주도방언이 갖고 있는 뉘앙스라든가 그 활용의 예 등이 비교적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제1권에서는 맛깔·색깔·성깔·태깔·행동의 어휘 등 의미별로 풀어서 설명해 놓았고, 제2권에서는 용언을 중심으로 제주인의 실생활이나 풍속과 결부시키면서 용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수록된 어휘는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용에 한계가 있다.

대중성 있는 방언용례사전이나 관용어사전 등은 문학 작품 창작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활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그 편찬 작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작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 만큼 반드시 이 분야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꼼꼼한 조사와 검토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방언을 찾아 쓰기 위한 작가의 노력

작품에 사용하는 방언 어휘를 좀더 확충하려는 작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제주도방언 가운데에는 살려 쓸 방언이 많다. 생생한 토속어들을 살려 창작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면 작품성의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한국 소설에서 홍명희의 『임격정』이나, 박경리의 『토지』, 김주영의 『객주』 등은 그 소설 자체로서 훌륭한 우리말의 보물창고가 되고 있는 작품들이다. 『임격정』은 그 작품에 나온 어휘들만을 정리해 풀이한 『임격정 우리말 용례 사전』(집문당, 1995)을 탄생시켰다. 『토지』와 관련해서도 등장인물·연표 등과 함께 어휘를 정리한 『토지 사전』(술, 1997)이 발간되었으며, 『객주』는 맨 마지막 권에 주요 낱말 풀이를 덧붙였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이 작품들이 모국어의 보존과 활용에 공헌한 바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방언을 활용한 작품들에서는 이런 기대에 필적할 만한 작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화¹⁹⁾는 작가들이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방언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거나 스스로 수집하는 것이라면 『제주도무속자료사전』과 『제주도신화』(서문당, 1976)에 나온 다음의 자료를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예시한 바 있다.

비비등등(34쪽), 프릿프릿(46), 혈쭉혈쭉(55), 알롱새(55), 쑤어나라(59), 프르릉(59), 호호호명(62), 어시렁더시렁(72), 줌지롱이(82), 씨원석석(94), 괄랑덜랑(99), 곱이침침(100), 올썰설썰, 지리님님(103), 소뽕호고(116), 곱곱들이(117), 줌목하다(118), 붕물어지다(123), 콸다(136), 도숙다(137), 새곰새곰(154), 둘콸둘콸(154), 소곡소곡(155), 솔므슴슴하다(155), 자작자작(156), 소랑소랑(157), 건불리다(159), 본깨본썰(161), 오조조조(161), 허우뜰다(162), 몽크리다(167), 축신축신(194) <이상 『제주도무속자료사전』 200쪽까지>

자지반반(92쪽), 시르르르(93), 와들랑이(96), 배롱하다(97), 오송오송(98), 청청하다(99), 오독독(99), 이리도골저리도골(100), 가로삭산(111), 습습하다(110), 허울허울(112), 너붓이(112), 어틀비틀하다(117), 허위뜰다(117), 소꼭하다(117), 소닥소닥(117), 와라치다(121), 건드러지다(123), 파룻파룻(123), 멍멍하다(128), 언

19) 김영화, 「제주문학과 언어」, 『제주문학』 제25집(제주문인협회, 1994), 253~254쪽.

뜩언뜩(129), 역력하다(132), 살그랑하다(133), 큰체하다(135), 어기녕창(135), 파딱파딱(136), 도록히(136), 움찍(136), 바드득바드득(139) <이상 『제주도신화』 ‘인간차사 강님’편>

『제주설화집성(1)』이나 『한국구비문학대계(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제주도민요연구(상)』(일조각, 1965) 등도 활용할 만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제주설화집성(1)』에서 필자가 추려낸 어휘를 예시해 본다.

퍼찍(27쪽), 아스릅다(27), 과짜(34), 으남지다(35), 지등토인(37), 팔탁(39), 우그생이(39), 부글락부글락(50), 오꼴(67), 판찍(69), 베롱(72), 번찍(74), 두렁지다(76), 얼떡다(77), 그레 주악 저레 주악(81), 몽클락(82), 바쌉(84), 을근이(87), 중중거리다(96), 음막하다(101), 복삭하다(103), 두망두망(109), 구짜(111), 팬지롱(122), 천지만지(123), 으상으상(125), 투글락하다(140), 바들랑바들랑(143), 캐우리다(156), 단작(156), 목쓸다(156), 얼랑비찍(156), 어마퍼찍(171), 볼롱볼롱(184), 으쌉(194), 게지라기(203), 출락출락(209), 주악주악(209), 줌짜(209), 게와시(215), 왈크랑달크랑(217), 와라차라(219), 연주안다(229), 팔팔팔팔(232), 이레 파짜 저레 파짜(234), 화짜화짜(234), 발강발강(234), 털레털레(239), 두롱두롱(252), 살강살강(254), 비찌랑비찌랑(255), 지싯킴(256), 왈락왈락(329), 데닥데닥(332), 툷락툷락(341), 마니털다(342), 행그랭이(342), 내훈들다(342), 도록도록(346), 빌착(347), 흥글흥글(347), 들강들강(348), 출락하다(349), 박삭박삭(362), 둥당둥당(398), 단바농 코타지면 어떠겟냐(437), 드망드망(489), 비출비출(517), 프들프들 흥계꾸리(522), 불랑불랑(531), 무숙무숙(549), 히여뜩하다(566), 드끈하다(572), 과락과락(584), 편개편개하다(589), 드그락드그락(590), ㄴ들ㄴ들(592), 외랑외랑(596), 과랑과랑(600), 왈랑왈랑(613), 살랑덜랑(613), 우그락하다(656), 어렁어랑하다(659), 우랑탕우랑탕(670), 무룩하다(693), 꺼딱꺼딱하다(706), 할할하다(714), 멀룩멀룩(746), 썩지그랑하다(757), 어실어실(772), 우막우막(786), 빼롱빼롱(790), 메죽메죽(799), 풍글랑풍글랑하다(804), 멜룩멜룩(804), 돼싸북딱하다(809), 자브세조광(819), 끄막끔막(828), 밀룩밀룩(828), 응그락하다(859), 벨롱벨롱(868), 비루오르다(872), 싱강싱강(902), 양양양양(906), 발짜발짜(910), 왈딱왈딱(937), 홀동거리다(937), 꾸굴꾸굴꾸굴(954), 돌각돌각돌각(986), 슴빱(991).

위에 제시한 어휘들 중에는 기존의 방언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런 어휘들도 검토를 거쳐 추후 간행될 방언사전에는 수록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학적인 면에서 이런 어휘들을 사용할 때는 특히 그것이 얼마나 제주도방언의 특성을 어떻게 살리고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방언의 활용은 주로 체언이나 어미에 치중되어왔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수식언(특히 의성어·의태어)이나 관용구 등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제주도방언의 특징을 더욱 부각시키고 그 어감을 잘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 대화에서만이 아니라 지문에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과감한 방언 활용

㉠ “느그므 속얌이병인가 먼강은 담배 타이지. 구십이 다 된 늙은이가 무신 담배는 저래 지독시리 끊는지. 내 시집가니깐 안죽 미구처럼 새파란 색시가 야시(여우)같이 토구리고 앉아 담배를 빠끔빠끔 피우고 안 있다. 그때부터 피아댄 줄담배니 담배값만 모아도 집 한 채는 샀을 까다.” 밥을 먹으며 어머니가 다시 할머니의 흉을 잡고 늘어졌다. “대담배는 독해서 몬 피운다고, 담배를 피워도 꼭 마구초만 피우니깐 담뱃값이 곱절로 더 들제. 거기다 한 번 피우모 몇 시간은 참는 기 아니고, 꺾다 피았다 꺾다 피었다 카니 알라들 장난도 아니고 성냥이 오죽 해푸나. 큰 성냥통도 일주일이 몬 갈까다.”

“마 어무이도 그만큼 하시오. 그래봐야 서로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랍니겨. 스스로 속이나 상하는 거지예.” 숟가락을 상 위에 놓으며 내가 말했다.(김원일, 「미망」)

㉡ “무신 소리냐?”

“금메 정제서 나오다 본께로 오빠 방 앞에 눈이 익은 신발이 있드랑께요. 잘못 봤는가 싶어 또 봐도 작은오빠 신발이 틀림없드랑께요. 작은오빠, 부름스로 문을 열어본께 작은오빠가 방 가운데 멍허니 앉았드만이라.”

“머 허고 섰나, 얼렁 일로 오라고 안 허고.”

셋터맥은 조금해서 소리쳤다.

“금세 오겼담서 날보고 앞서 가라드만요.”

“근데, 워디 갔었다디야?”

“암말 안 허드만요.”(조정래, 「박토의 혼」)

㉢ 그때 선출이는 “거것두 자랑이라던가되 헤헤, 내 참, 여어보슈, 여북 오죽잖았으면 뱀이 읍시도 살었겄슈? 증생들두 뱀이 보호를 해 줘야 살어나가넌디……”

당신이 무엇 같게 살아왔으면 뱀두 소용없었겠느냐 말여 내 말은……” 녀석도 취기가 보통은 지난 듯했다. “뒤통, 즈생이 워져?” “흥.” 선출은한술 더 뜨며 포악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내 말 좀 들어보잉? 나두 동네 사람덜이 보구들 아시다시피 몸으루, 아널 말루 증말 무식허유, 현디, 대관절 이 땅에 분괴[變怪]가 몇 번이나 났던 중 알유? 알어? 증말 참 똑똑헌 사람은 다 죽구 읍시 되었던 말유. 지기랄 오죽했으면 뱀 읍시도 살은 게 자랑여?” “그런디 저너러 색기가 시방 누구를 워치기 보구시럼 저 지랄이라?”(이문구, 「암소」)

㉠은 경상도방언, ㉡은 전라도방언, ㉢은 충청도방언이 구사된 작품들이다. 위에서 보듯이 한반도 다른 지방의 방언들은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결코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며, 의미 파악에도 어려움이 없다. 이처럼 다른 지역의 방언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읽을 때 그다지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그 방언들이 본디 이해하기 쉬운 데서 연유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중들의 눈과 귀에 많이 익은 방언이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지역 방언들이 것처럼 대중과 친숙해지기까지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매스컴의 역할이 지대했을 것이다. 작가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작품 창작에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 등을 통해 빈번하게 구사되어 왔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 방언들을 별 어려움 없이 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주도방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물론 다른 지역의 방언에 비해 제주도방언이 유다른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방언도 한국어의 하위 단위임이 분명하므로, 활용되는 횟수가 많아져 갈수록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아무리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바리, 오름, 테우리, 하르방, 아주망, 심방, -수다, -과, -마쌌’ 정도의 제주도방언들은 본토인들도 익히 아는 방언이 되었다. 이런 어휘들도 처음에는 독자들을 위해 ()에 표준어를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들이었는데, 부지불식간에 익숙해진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작가들이 제주도방언을 활용한 작품 쓰기를 계속해 나간다면 독자들도 점차 방언이 눈에 익게 될 것이므로 그것의 수용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의미 파악에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한 어휘나 문맥상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는 어휘는 과감하게 방언으로 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4. 맺음말

이상에서 문학에 나타난 제주도방언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는 한편,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작품 창작에서 방언을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 보았다. 소극적 활용, 현실음과의 거리, 표기 기준의 흔들림 등이 문제임을 알아보았고, 표기 규정의 정립, 방언 관련 사전의 편찬, 방언을 찾아 쓰기 위한 작가의 노력, 과감한 방언 활용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주도방언의 문학적 활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문학은 한 사회를 결속시키고 유대의식을 불어넣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나라의 문화유산인 문학은 그 민족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몸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언어를 계속 살아 숨쉬게 하는 방법은 그 언어를 가지고 문학 작품을 쓰는 일인 것이다. “비록 한 민족이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더라도 자기네 국어를 잘 지키고 있는 한, 감옥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이는 알퐁스 도테(Alphonse Daudet)의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잘 알려진 대목으로, 프랑스 땅이었던 알자스와 로렌이 독일에 병합되면서 그곳 사람들이 프랑스말을 더 이상 못 쓰고 못 가르치게 된 상황에 이른 시점에서 아멜 선생님이 한 말이다. 그만큼 언어와 민족정신은 직결되는 것이다.

민족의 하위단위라 할 지역도 마찬가지다. 제주도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려면 제주도방언을 잘 다듬고 지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주도방언을 잘 보전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필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적절히 활용해서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제주 작가들이 이런 문제에 사명감을 갖고 창작해 주기를 기대한다.